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성남일보

snilbo.co.kr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두리인력파출부

www.dooryjob.com

1566-8814

제49호 | 발행일 : 2014년 4월 28일~5월 4일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과 같다”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 주요 프로필

- . 전 정무장관
- . 전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 . 전 The American Univ. 석좌교수
- . (사)지방자치제고개선모임 상임대표
- . 성남시 원로회의 의장

건강한 성남을 위한
시민의 첫 걸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로
투표일이 2일 더 늘었습니다.

5월 30일~31일, 오전6시~오후6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국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남 만들기!! 투표하는 시민이 만듭니다.



새누리당

성남시장예비후보

박정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조례안 '논란'

신영수 성남시장에비후보,기초연금법제정 후조례제정촉구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성남시의 기초노령연금조례안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재선 욕심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25일 시의회를 소집했다”며 “기초노령연금조례안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시 폐지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성남

시가 기초노령연금 최대 20만원 중 시 부담분 40%인 8만원을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한 만큼, 입법예고 등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만을 겨냥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시 부담분 40%를 균등하게 지급할 경우 소득계층간 역전현상이 발생돼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 1인 기준은 79만원~87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이에 맞춰 2만원~9만91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즉, 소득이 79만원인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을 9만9100원을 지급해 총 88만9100원의 소득수준이 되고,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은 2만원을 지급해 89만원의 소득수준이 된다.

여기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조례안이 제정되면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의 경우 9만2000원(2만원+7만2000원)을

수급받기에 96만2000원의 소득수준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87만원 이상인 어르신은 연금을 받지 못하기에 소득이 88만원~96만원인 어르신은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과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신 예비후보는 특히 “이재명 시장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일괄 지급을 전제로 시 부담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기초연금법이 7월 전에 제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폐지되기에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조례안도 폐지돼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재선 야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례 제정안은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시행 예정인 7월에 맞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집행부와 시의회에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경선 5월 10일로 연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이 오는 5월 10일로 연기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방선거 경선 일정 연기를 논의한 결과 경기도지사 경선 일정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세월호 참사로 안산 지역

서 피해자들이 집중돼 있어 경기도 경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지사 경선을 5월 10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경필 후보와 정병국 후보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애초 4월25일 예정됐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5월2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미뤄졌다.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1.5% '상승'

가장 비싼 주택 84억1,000만원...가장 싼 주택 1,990만원

성남시내 가장 비싼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주택으로 84억1,000만원, 가장 싼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주택으로 1,9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용도지역 변경, 도로신설로 인한 도로조건 변경 등의 주택특성 변화와 판교지역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 상승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개별주택가격'을 오

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수정구 1만 8,886호, 중원구 1만 2,884호, 분당구 4,732호 등 모두 3만 6,502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과정을 거쳤다.



새누리당 성남시장 경선 '초읽기'

박정오·신영수·정재영 예비후보 당원 표심 공략...30일 투표 실시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됐던 새누리당 성남시장 경선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오는 30일 박정오·신영수·정재영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인단 투

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30일 성남시장 공천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성남

시장 경선방식과 관련,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는 50:50 경선을 통해 성남시장 후보자를 이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종북척결'은 성남시민의 명예회복

자유민주국민운동·종북척결 자유운동 성남시민대회 '성료'

자유민주국민운동(최인식 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2 모란장터 앞에서 종북척결 자유운동 제7차 성남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연사로 이계성 대표(반국가교육척결 대표), 엄덕길 분당경우회 회장, 국민통합운동본부 김형좌 목사, 서종철 성남시문화해설사 회장 등이 나서 종북척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 연사들은 RO 이석기 재판, 제주 4.3폭동 정부 추념일,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점들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판결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고, 왜곡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를 주관한 최인식 자유운동 운영위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자각하고 단결해 성남시가 종북반역 세력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벗는 성남시민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체화'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일 고등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표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

택지구 보상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성남 고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56만9천㎡에 3,135가구를 짓는 국책사업이다. 이곳은 지난 2010년 5월 26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2011년 10월 13일 지구

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협의보상을 개시하면 내년 상반기 대지조성공사가 시작된다.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7년 12월 말 완공이 목표이다.

성남지역과 수도권 내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어 8,467명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인터뷰 자서전 펴낸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

표절은 지식을 도적질하는 강도행위 자서전 통해 정치현실에 대한 처방 제시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정치인생을 마무리 하는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의 자서전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은 지난 40년간의 정치철학을 압축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전 부의장으로부터 자서전 출간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최근 근황은 .
어느덧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7선 국회의원과 장관, 부의장까지 지냈으니 아인으로 돌아가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을 보면서 책의 향기에 푹 빠져 지내 왔습니다.

▶▶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선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추구하는 풀뿌리민주주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중앙정치의 폐해인 망국적인 2가지의 압적존재 즉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를 지방까지 전염시켰습니다.

'패거리문화와 부정부패'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압적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모여져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자서전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정계를 은퇴하고 소일하던 중 어느날 거울에 비친 팔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한국 정치사를 몸소 겪으며 살아온 수십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 묻혀있을 기억들이 하나씩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말입니다.

생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지나간 흔적들을 정리해 보자는 생각에서 자서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작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내 경험들을 덧씌워 귀뜸이라도 해 주어야겠다

고 마음먹은 것도 한 요인입니다.

▶▶ 자서전의 주요 구성은.

이 책의 1장에서는 제 정치인생의 발자취를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인 '부정부패'를 다룬 '김영란 부패방지법'은 원안대로 결정돼야 '를 비롯해 '집단 이기주의', '표절', '남의 자서전에서 배우기' 등 4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설정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이 알고, 판단하고, 기억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 책의 제목을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으로 정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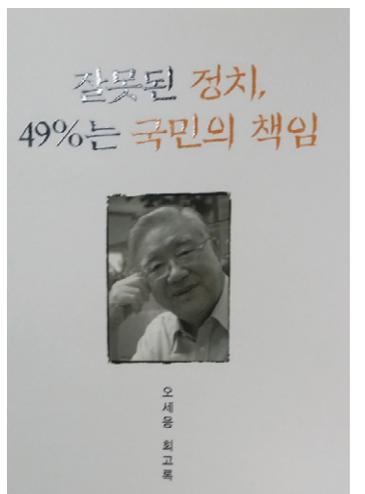
동서고금에 변치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즉 "한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치철학에서는 "國家興亡 匹夫有責"(나라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그 국민이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고 서양의 진리는 "People have the Government they deserve"(인간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이 정치를 좌지우지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잘못된 정치의 60%는 유권자의 책임으로 본다.

그런데 저처럼 한평생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 책임이 반 이하인 49%는 국민의 책임이라는 취지에서 자서전 제목을 '잘못된 정치, 49%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과 정치인이 잘못된 정치에 대한 책임을 반반씩 하고 있으나 잘못되었을 때에는 받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국정치가 발전합니다.



경기도의회

행복 공감, 희망주는 의회

도민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 경기도의회

1,250만 도민이 원하시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250만 도민의 희망을 새로운 현실로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민생중심 정책개발과 현장 확인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도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도민

경기도의회

행복열매

희망열매

민생중심

www.ggc.go.kr

새)성남시장 후보 박정오·신영수·정재영 확정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후보 확정

새누리당 경기도당 지난 13일 성남시장 경선후보로 박정오·신영수·정재영 예비후보 등 3명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성남시장 경선방식과 관련,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는 50:50 경선을 통해 성남시장 후보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당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성남시를 비롯해 경선지역 19곳, 단수 신청 지역 2곳, 여성공천우선 지역 등에 대한 공천심사를 마쳤다.

이번 공천에 대해 경기도당 관계자는 "11차례에 걸쳐 신청 서류에 의한 적격심사, 단체면접 및 개별심층 면접, 지역현지 실사, 당선 가능성 등 5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공정한 공직후보자 추천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수정 당협위원장 윤춘모 교수 임명

새누리당은 14일 신영수 전국회의원의 성남시장 출마로 인해 공식이 된 성남시 수정

구 당협위원장에 윤춘모 전 성남시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수정구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춘모 위원장은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민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윤춘모 위원장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성남시장 선거와 시, 도의원 후보자들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스베가스 플라잉 기슘림내한 관객석을 날아다니는 피터팬

MUSICAL PETER PAN

2014. 5.3(토) - 5.5(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원작 J.M.Barrie 연출·각본 안병욱 음악 최재광 안무 한수현

출연 임연빈 원혜지 이경용 박선주 이리음 이마음 백지은 정라영 홍지연 손민아 이혜이 이주연 정희경 임선아 김경우 래원 경성재 유윤호

제작·주최 PARKS CULTURE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광주시, 자연채 로컬푸드매장 개장

광주시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자연채 로컬푸드매장'을 지난 24일부터 임시개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채 로컬푸드매장의 취급품목은 친환경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광주시에서 생산

되는 물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판매한다.

광주시는 자연채 로컬푸드매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운동을 확산시켜 소비자는 산지에서 바로 가져온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농가는 농산물을 중간유통과정 없이 직접 판매, 소득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연채 로컬푸드매장은 사회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24일 개장일로부터 한달간 농가로부터 받는 운영수수료 전액을 안산단원고에 기부할 예정이다.

성남 누비길 뜬다

‘더불어 누빌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

성남시내 특색있는 등산로를 통칭할 이름으로 '성남 누비길'이 선정됐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이 상시 이용 가능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행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9~10월 등산로 명칭을 공모해 108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심의 대상에 오른 더디더디숲길, 두루누리길, 성남어울림(림) 숲길, 성남마루길, 성남숲올레길, 성남누비길 등 6건의 명칭 놓고 지난 1월과 3월 명칭 선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성남 누비길은 여정숙(여,

45)씨가 공모한 명칭으로, '더불어 누빌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남문화원 관계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성남시의원, 성남등산학교,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는 '누비길'이 숲과 숲 사이의 다양한 등산길을 정확하게 표현했고, 함께 누빈다는 의미가 주는 상징성과 발음하기 쉬운 어감이 등산로를 통칭할 이름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허재안 성남시장 예비후보, 이재명 시장 '비판'

기자회견서 이재명 시장의 도를넘는 공권력 남용 강력 '항의'... 정중한 사과요구



허재안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공권력 남용으로 치졸한 정치를 하는 이

재명 성남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허 예비후보는 "이재

명 시장 본인도 성남시장 후보군이면서 현직 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공권력을 동원해 타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도 개탄스럽다"면서 "이재명 시장은 타 후보의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을 강제철거했다"고 비판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기습 철거하는 거꾸로 행정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 현수막이 주말에 쉬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을

긴급 동원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며 성남시의 일방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번 강제철거 된 현수막은 정치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현수막 철거를 강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예비후보는 "사전투표제 현수막 철거를 당장 중지하고 원상회복은 물론, 해당 후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타 후보들과 연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 예비후보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허재안 예비후보는 중간에 포기한다. 이미 단일화에 합의 했다.' 등의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다"면서 "희망대공원 시민현장비 앞에서 시민과의 약속 지킴이 선언에서 밝힌바와 같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할 것을 선언한다"고 완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전하진 의원, '선동정치 멈춰야'

구미동 법원부지 행복주택 건설 계획 없어.. 사실 확인 없는 정치이용 비판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 을)은 최근 국토부가 구미동 일대 국유지와 사유지에 2천3백 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하려한다는 논란이 가중되자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LH공사는 성남시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이 확보한 국토부 공식 답변 자료에는 항

후 성남시 관내 행복주택 공급을 검토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 확산 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토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지 활용에 있어 지자체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어떤 조건보다 지역주민이 동의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활용계획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선거철이 가까워지자 민심을 흔들고자 지역에 민감한 사안들이 사실 여부를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선동정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대 성남캠퍼스, 나이팅게일 선서식 '성료'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은 24일 성남캠퍼스 뉴빌레니엄센터 대강당에서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조우현 을지대학교 총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을지대 간호대학 3학년 학생 164명은 선서식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을지대학교 조우현 총장은 "여러분들이 두손으로 쥌 촛불은 사랑과 봉사라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상징한다"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유혹

이 있더라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기억하며 오늘의 다짐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또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을지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금지가 사랑과 봉사라는 나이팅게일 정신을 지켜줄 것"이라며 "을지재단 산하의 모든 가족들이 응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을지대 간호대학은 지난 '제5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하며, 2002년부터 13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응시, 전원 합격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전통있는 명문대학이다.

이태호 새누리당 도의원 예비후보, 표심 공략

선거사무실 개소식 갖고 본격적 행보... '함께 소통하는 행복공동체 만들터'



이태호 새누리당 경기도 도의원 예비후보(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는 지난 11일 '함께 소통하는 행복공동체' '콘텐츠가 풍성한 창조경제의 핵심도시 분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분당을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정재영 성남시장 예비후보, 지역주민 등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태호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주민간의 소통 강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행복공동체 분당을 강조했다.

이어 "보다 좋은 삶을 만드는 문화 복지를 주민의 기본권으로 여기고 문화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다양성 콘텐츠가 풍성한 기반 위에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핵심도시로 가는 길에 분당시민들과 함께 동행하려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토부와 LH공사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 법원 부지와 하수처리장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림프부종 건강강좌 개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이하 분당차병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지하2층 대강당에서 '림프부종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부인암의 진단과 수술 및 관리법(부인암센터 박현 교수) ▲유방암의 진단과 수술 및 관리법(유방암센터 강봉수 전임의) ▲림프부종의 관리(재활의학과 민경훈 교수) ▲림프흡수 마사

지 교육(재활의학팀 유아림 치료사)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림프부종은 림프혈관계 순환 장애로 인해 조직에 과도한 부종과 단백질질의 축적, 염증 섬유화가 초래되는 만성 질환이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나 방치될 경우 증상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조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정재영 시장 예비후보, 베리탈리아 협약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예술대학교 총장 이탈리아 대리인 자격 협약 체결



성남이 국내 최고의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빛과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며 세계적인 예술가로 우뚝 선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 예술대학교 총장은 16일 오후 새누리당 정재영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굿모닝 카페를 방문해 이탈리아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베리탈리아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소 ‘뉴 성남교육문화 창달 플랜’을 앞세워 성남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정재영 예비후보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브리핑을 통해 소신 있으며 남다른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 ‘베리탈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베리탈리아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명품들로 가득한 프리미엄아울렛으로 프라다 명품 거리를 유치하고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노키오파크를 건립하며 최고의 문화 사업을 펼치는데 그 핵심으로는 이탈리아 종합 예술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으며 더나가 7성급 불가리호텔도 마련하는 것이다.

프라다 명품거리는 이탈리아의 최고급 브랜드 거리를 유치함으로써 성남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성남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피노키오 공원은 피노키오의 원작자가 이태리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로열티 없이 한국에 설립하는 있다.

이는 용인에버랜드 같은 상업성을 내세운 공원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손잡고 동화속의 조각을 보며 거닐 수 있는 편안한 가족 공원의 형태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휴식처가 된다.

이탈리아 종합예술학교는 △라스칼라 국립예술원 △베르디 국립음악원 △에우로페 디자인스쿨 △CSC국립영화스쿨 △국립문화재복원스쿨 △브레라예술(미술)대학 △보케리니국립음악원 등이 속해 있는데 학문적인 분야 보다는 실체적인 체험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 수준 높은 기

술자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이탈리아의 명인들이 거의 이 학교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사업으로는 푸치니 오페라하우스, 피콜로극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피에라 밀라노 컨벤션센터, 무라노 유리마을 등을 지원하는데 이 같은 사업을 위해 7성급 불가리 호텔 같은 최고 수준의 호텔을 유치함으로써 성남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정재영 예비후보는 “오늘날 성남은 배드타운의 대표적인 도시로 형성되어 정적인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전있는 사업을 유치해 성남을 보다 더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명품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상 총장은 “오늘 날 미국과 유럽의 선진각국은 명품 슬로시티, 에코랜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재영 후보와의 만남을 통해 성남지역 곳곳을 탐방하면서 청계산과 울동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토대가 잘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태리정부를 대신해 베리탈리아 프로젝트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이른바 로열티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성남시에서 절대로 빛 안지 고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영 성남시의원, 장애 극복상 수상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시상, 장애인복지앞장

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김기호)가 50만 경기도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일꾼을 찾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06년 성남시의회 최초 장애인 출신 시의원으로 진출, 장애인 조례와 정책, 복지시책을 내놓은 정기영(지체장애 1급, 46) 시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기영 시의원은 세 살이 되던 1970년 홍역을 심하게 앓던 중 의사의 오진과 잘못된 처방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지만, 특유의 낙천적 성격으로 브라스밴드, 비두로남성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장애에 얽매이지 않아 친구들에게 ‘괜찮은 놈’으로 통했다.

정기영 시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책과 편



의 시설 설치 요구 등은 장애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장애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았으며,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웅 전 국회부의장 출판기념회 ‘성료’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개최

오세웅 전 국회부의장의 정치철학을 담은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 출판기념회가 지난 2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내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는 오세웅 전 국회부의장은 제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15대 국회부의장을 역임, 7선 의원을 지

낸 정계 원로로 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 단장,정무제1장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위원장,통일의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당초 계획 했던 출판기념회 보다 규모를 축소해 경건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남한산성 어린이 토요일문화학교 ‘시동’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우리동네 보물찾기 참가자 모집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건전한 주말 문화 조성 및 인성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어린이 토요일문화체험프로그램인 ‘2014 남한산성 우리 동네 보물찾기 프로젝트 ‘소소한 발견’의 어린이 참가자를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우리 동네 보물찾기 프로젝트 소소한 발견’은 남한산성 곳곳을 탐색한 후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 아이들만의 보

물로 지정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문화공감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7주 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문화재에서 보물찾기 2회, 숲에서 보물찾기 2회, 우리의 전통놀이를 통해 보물찾기 1회로 진행되고 마지막 시간에는 남한산성 숲으로 떠나는 소풍으로 수료식이 진행된다.

수업을 통해 발견된 아이들의 보물들은 남한산성 블



로그 및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성남YMCA

김윤규 이사장 취임

성남YMCA는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이사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윤규 이사장이 취임식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이.취임식을 갖는 성남YMCA는 지난 1981년 2월 22일 창립된 이래 건전한 시민 의식 함양,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의 사회체육 함양 활동, 시민의 문화지수높이기 활동 등 지역 사회 활동에 기여해 온 기독교청년단체다.

정형주 성남시장 후보, ‘물·전기·가스 무상 실현’

통진당 시·도 의원 예비후보 8명 합동기자 회견... 본격적인 표심 잡기 ‘시동’

정형주 통합진보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시·도 의원 예비후보들은 지난 9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6.4 지방선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통진당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자들이 박근혜 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6.4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진리를 성남시민과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민선 5기를 마감하며 성남시가 100만의 특례시로 발전할 민선 6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6.4 지방선거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민무시 행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후보들은 “민선 5기는 새누리당이 망쳐 버린 후과를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락이 우선이고 시민은 뒷전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형주 성남시장 예비

후보는 3+3 핵심공약 발표를 통해 “물, 가스, 전기 무상공급을 실현하겠다”면서 “성남의료원을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밝힌 시·도 출마자들은 ○ 라병득 도의원 예비후보(수진1.2동, 신흥1.2.3동, 단대동) ○ 김현경 시의원 예비후보(중앙동,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 지한규 시의원 예비후보(상대원1.2.3동) ○ 임은경 시의원 예비후보(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



최성은 시의원 예비후보(산성동, 북정동, 양지동, 태평4동) ○ 서애란 시의원 예비후보(수진1.2동, 신흥1동) ○ 김미라 시의원 예비후보(구미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등 7명이다.

중원구 주민 선호 1위 ‘재개발? 재건축’

윤은숙 도의원 예비후보 조사결과 발표... 재개발 재건축 49% 찬성



6.4 지방선거에서 중원구민이 원하는 최대 이슈는 재개발?재건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윤은숙 도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13일까지 중원구 제4선거구민 501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중 재개발?재건축이 49.1%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확대가 19.1%로 뒤를 이었고, 청소년과 평생교육 확대가 13.8%,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이 7.9%, 문화예술확대가 2.1%, 잘 모르겠다가 8.0%로 집계됐다.

재개발?재개발의 경우 중앙동 주민의 62.8%가 원하고, 은행1동이 52.5%, 금광2동이 46.0%, 은행2동이 44.0%, 금광1동이 43.5%가 원하는 것으로 나와 5개동 모두 1순위로 꼽혔다.

사회복지 확대는 금광2동 주민 중 27.8%가 가장 많이 원하고, 청소년과 평생교육확대는 은행1동 주민 중 25.6%가 원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41%가 다

양한 평생교육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성별 조사 결과를 보면 재개발?재건축은 남성이 53.0%, 평생교육은 여성이 18.1%, 복지확대는 남성이 22.5%, 일자리 창출은 남성 7.2%, 여성 8.7%로 거의 비슷하고, 문화예술은 여성이 2.4%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숙 도의원은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도시환경정비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각 시군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지원을 대폭확대함은 물론 용적율을 현행 250~265%로 되어 있는 것을 3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사업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공시지가로 저렴하게 조합에 매각하고, 지구내의 공원과 녹지조성비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 밝혔다.

분당차병원, 단일공로봇 담낭절제술 성공

외과 최성훈 교수팀, 첨단 IT 수술 선도할 것

분당차병원은 외과 최성훈 교수팀이 양성 담낭질환에 대해 단일공로봇 담낭절제술(Single Site Robotic Cholecystectomy)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성훈 교수팀은 지난달 27일 양성 담낭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 환자에서 단일공로봇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특히 배꼽을 통해 수술하여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아 수술 후 흉터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기존 단일공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비해 출혈 및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도 3일 정도로 짧아 수술 후 만족도를 높였다.

단일공로봇 담낭절제술은 의사가 원격 콘솔 장치에 앉아 직접 몸 속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은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수술하는 것과 같이 손을 움직이면, 실제 몸 속에 삽입되어 있는 5~8mm 굵기의 로봇 팔이 의사가 움직이는 손의 움직임과 똑같이 수술을 하는 방식이다.

최대 15배 확대한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술하는 의사의 손 움직임이 디지털화되므로 미세한 손 떨림을 막아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분당차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빈치 Si 시스템(da Vinci Si IS3000 Surgical System)은 가장 업데이트된 세계 최신 모델로,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다양한 신기능을 장착하여 효과적인 단일공수술을 지원한다.

위례신도시 송파권 첫 중학교 승례중개교

위례신도시에 최초로 승례중학교가 지난 24일 개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승례중학교는 송파권 위례신도시에 신설된 첫 중학교로, 22단지과 24단지 사이에

위치해있다. 신입생 107명(5학년), 2?3학년 전입생 175명(각 4학년, 특수학급 1학급) 등 전체 14학년 규모로 282명의 학생이 다닌다.

창의적 인재 육성과 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집중학년제트랄랄라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훈상 차병원장, 외과학회 종신명예회원 위촉

한국인유일미국 외과학회 79번째 종신명예회원

지훈상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겸 분당차병원장이 외과 분야의 교육·연구·진료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시스템 개선 등 의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인정받아 한국외과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외과학회 79번째 종신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지훈상 의료원장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

국 외과학회 학술대회 총회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 받고, 수상연설을 하게 된다.

미국 외과학회(American Surgical Association, ASA)는 1880년에 설립된 전 세계 외과 최고 규모와 권위의 학회다. 외과 분야의 업적과 학문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소수의 학자만을 명예회원(Honorary Fellow)으로 선정하는데, 이는 전 세



계 외과 의사들에서는 최고의 영예다. 현재까지 학회 130년 역사상 78명만이 명예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한국인으로는 지훈상 의료원장이 유일하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주간 성남일보

발행·편집인 : 모동희
 등록일 :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 경기 다00907
 홈페이지 : www.snibo.co.kr

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29-4 광장빌딩 505호
 구독·광고문의 : 031-721-9922
 메일 : webmaster@snibo.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성남일보

snilbo.co.kr

이태현 행정사

각종 서류대서,
이혼신고, 생활법률

상담 031-731-9787

제49호 | 발행일 : 2014년 4월 28일~5월 4일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 '모라토리엄 정치쇼'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선언은 시 명예 추락... '가짜 모라토리엄 실체 밝힐 것'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시작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시작부터 의문투성이로 낙인찍힌 가짜 모라토리엄 선언을 바로 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박정오 예비후보는 그동안 밝혀진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전임 시장이 펼쳐놓은 사업을 폐기할 방법을 찾다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엄청난 '정치쇼'를 궁리해 낸 것"이지 (당시 공문을 보더라도) 국토부나 LH 등 어느 기관도 성남시에게 돈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가 밝힌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은 과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성남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정규모, 재정건전성면에서 230개 기초지자체 중 선두권(재정자립도 72.4%, 전국평균 50.2%)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비공식 부채를 모두 정리해 '졸업'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이 갚았다고 밝힌 '관교특별회계 전입',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관교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모두 시의 예산 범주에 속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자 없는 회계간 전입·전출금을 갚기 위해 진짜 빚을 지고, 이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2011년,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천157억 원의 이

지만 연간 약 47억 원 씩을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전했다. 따라서 박 예비후보는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재정전전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채 상황을 보면 재임기간 동안 훨씬 더 늘어나 이 시장의 논리라면 지금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라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명을 남긴 정치인에 대해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정치적쇼'에 불과한 꼼수로 성남시 이미지를 추락시킨 '가짜 모라토리엄'을 밝혀내고 성남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교서 '융합명품강좌시리즈' 연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유명연사 10인 초청 강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박태현, 이하 융기원)은 지난 3월 관교에 개소한 융합기술전문교육센터 'SNU&G 컨택 아카데미(이하 컨택아카데미)'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10회에 걸쳐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를 개최한다. 융기원은 그동안 다양한 융합의 대중화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 오고 있으며 융합문화콘서트를 비롯한

학술포럼 등을 매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융합기술전문교육센터인 컨택 아카데미를 관교에 개소하고 산업융합 인재양성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가운데 대한민국 융합기술을 대표하는 유명연사 10인을 초청해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컨택 아카데미는 '기업 맞춤형'의 융합기술전문교육센터로 산업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지난3월 관교에 개소하고 융기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지식수준 함양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융합의 대중화와 지역사회발

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 강좌는 총 10회 시리즈로 오는 5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관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8회 이상 수료시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및 이사장(서울대총장)명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성남일보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있습니다.

2000년 7월 6일 창간된 성남일보가 창간 13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그동안 성남일보 자매지로 발행된 '뉴스데이'를 '주간 성남일보'로 제호를 바꾸고 OFF-LINE과 ONE-LINE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성남일보는 제왕적 지방자치권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새로운 장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www.snilbo.co.kr

